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BC: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98억불... 작년 비해 7.5% 상승
- Bloomberg: 11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 감소
- WSJ: 노동 시작 둔화에도 불구하고 의료 부분 고용 강세

[미국 금융]

- WSJ: 투자자들, “경기 침체 관계없이 금리 인하된다”

[미국 생활]

- WSJ: 왜 현재 모든 종업원들은 불행할까?

[부동산]

- CNBC: 프리미엄 오피스 공간은 수요가 높다
- USNews: 10월 신규 주택 판매 예상보다 크게 감소

[물류]

- Bloomberg: WTO, “글로벌 상품 교역 회복중.. 자동차, 전자제품 덕분”
- Bloomberg: 백악관, 새로운 공급망 대책 발표 예정

[에너지]

- WSJ: 미국 오일 회사들, 생산성에 고민한다
- Bloomberg: OPEC+ 고위급 회담 전, 유가 약세 조짐 보인다

[기후]

- WSJ: 기후에 몇 가지 좋은 소식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아마존, UPS 넘어서 가장 큰 택배 회사 노리다
- WSJ: 소매기업들, 연휴 쇼핑 대비 새로운 재고전략
- CNBC: 항공 택시 기업 Liliium, EU에서 운영 허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BC: Black Friday shoppers spent a record \$9.8 billion in U.S. online sales, up 7.5% from last year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98억불... 작년 비해 7.5% 상승

- 관련 조사 Adobe Analytics이 조사에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작년에 비해 7.5% 상승해 98억달러를 기록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온라인 매출 상승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확인 혜택을 온라인을 통해 적극 활용하려는 소비 행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또한 이같은 지출 증가는 유가와 식품비용이 고통스럽게 높았던 작년 보다 더 기꺼이 지출하려는 소비자 추세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CNBC 기사

Bloomberg: Employment Fell at US Service Providers, Factories for First Time Since 2020**11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 감소**

- S&P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약한 수요와 높은 고용 비용 때문에 지난 2020년 중반 이래 11월 서비스업체와 제조업체들의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고용지수는 1.6포인트 빠진 49.7을 기록했다.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인 50 바로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 일자기 감소거 제조업 부문을 넘어서서 서비스 기업들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원 숫자를 다시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Bloomberg 기사

WSJ: Hot Healthcare Hiring Bolsters Cooling U.S. Labor Market**노동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의료 부분 고용 강세**

- 보건 분야의 고용 붐이 다른 부분 업종의 약한 고용을 상쇄시키고 있으며 경기 침체를 치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 고령화와 코비드 19으로 인해 헬스케어 서비스와 종사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수년동안 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이다.
- 헬스케어 종사자들은 전체 고용 부분의 11%가 미쳐 되지 않지만 올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미 일자리의 상승분의 30%를 점유했다.
- 의료 부분 종사자들은 병원, 클리닉, 약국, 의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WSJ: Investors See Interest-Rate Cuts Coming Soon, Recession or Not****투자자들, “경기 침체 관계없이 금리 인하된다”**

- 요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베팅 가능성이 높아졌다.
- 월가는 금리 인하에 대비하고 있다.
- 연준이 인플레이 둔화를 위해 역사적인 캠페인을 시작한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앞으로 단 4개월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통

성이 높다고 믿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다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금리 선물은 연준이 내년 5월까지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25% 내릴 가능성을, 10월에는 29% 예상했으나 현재 60%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또한 내년말까지는 4차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WSJ: Why Is Everyone So Unhappy at Work Right Now? 왜 현재 모든 종업원들은 불행할까?

- 미국인들은 최근 수년동안과 비교해서 최근 일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갤럽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 유급 휴가 증가, 원격 근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노, 스트레스, 업무 집중도 감소가 늘고 있다고 답했다.
- 또한 관련 BambooHR이 5만7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 만족도는 지난 2020년 초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올해만도 10%가 감소했다는 것.
- 불만의 이유는 인플레이션, 불안정한 근무 형태(예, 주 5일 근무하는 새 직장으로 이전 등), 관리자들도 직원들과의 단절에 따른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WSJ 기사

[부동산]

CNBC: The looming office space real estate shortage. Yes, shortage 프리미엄 오피스 공간은 수요가 늘다

- 다운타운이 비워지고 타워에 있는 많은 사무실 업무가 끝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르면 오피스 부동산의 최대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CoStar 그룹에 따르면 오래된 건물은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높은 이자율로 부채 재융자에 직면한 일부 건물주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최고급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임대 활동은 이미 지난 2015년~2019년 코로나 이전 기간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 오히려 신축 프리미엄 상업용 건물은 신규 입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건물들은 2020년 초부터 분기당 순 신규 입주가 1천2백70만평 피트인데 반

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비슷한 부동산의 분기별로 평균이 1천1백70만 평방피트였다.

CNBC 기사

USNews: US New Home Sales Fall More Than Expected in October **10월 신규 주택 판매 예상보다 크게 감소**

- 10월 미 신규 주택 판매는 5.6% 줄어든 연율 조정치로 67만9천채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월요일 밝혔다. 9월 판매는 당초 75만9천채에서 71만9천채로 하향 조정됐다.
- 신규 주택 판매는 계약 체결 시점에 체결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된다. 그러나 월별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비교해서는 판매 건수가 17.7% 늘어났다.

USNews 기사

[물류]

Bloomberg: Global Goods Trade Rebounds on Demand for Cars, WTO Says **WTO, “글로벌 상품 교역 회복중.. 자동차, 전자제품 덕분”**

- 세계무역기구(WTO)가 상품 교역 추세 보고서를 내놓았다. 지정학적 갈등이 단기적인 전망에 있어 매우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 동시에 이 기구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을 강한 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글로벌 상품 교역이 최근 슬럼프에서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 이 기관은 주기적인 상품 바로미터는 8월의 99.1에서 최근 100.7로 증가했다. 바로미터 1백은 중기 추세 하고 할 수 있는 다음 분기에 성장을 의미한다.
- 이 기관에 따르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글로벌 무역량이 올해 하반기의 중기 추세를 향해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hite House Touts New Supply Chain Measures as Inflation Eases **백악관, 새로운 공급망 대책 발표 예정**

- 오늘 월요일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공급망 강화 관련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런 노력의 중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시킬 새로운 내각급 기구인 공급망 회복 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n Supply Chain Resilience)가 있다.

-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분석에 따르면, 공급망 문제가 미국 인플레이션 급등의 60%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바이든 행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의료제품 원료에 3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과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고위험 해외 공급업체 의존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WSJ: American Oil—Good to the Last Drop? 미국 오일 회사들, 생산성에 고민한다

- 요지: 엑손과 다른 정유회사들은 미 유전에서 더 많은 오일을 짜낼 방법을 고안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 셰일 개발 업체들은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석유 시추를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현재 그들의 상황은 현금이 넉넉하지만 생산량이 많은 Permian 분지의 재고가 소진될 것이라는 상황이라는 것.
- 이에 따라 일부 셰일 기업들은 마지막 한방울까지 채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 생산업체들은 초기 생산량을 극대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Enverus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육상 및 해상 생산성(시추 1피트당 첫 12개월 동안 생산한 오일량)이 200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그런데 생산선 향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 유정의 길이를 늘리려면 더 많은 인접 토지가 필요하고 유정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서비스 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Oil Shows Signs of Softening Before High-Stakes OPEC+ Meet OPEC+ 고위급 회담 전, 유가 약세 조짐 보인다

- 이번 주 목요일로 연기된 OPEC+ 회담에 앞서, 원유 공급이 수요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는 2024년에 원유 감산을 준비 중인 OPEC 가입국들에 성가신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9월에 고점을 찍었던 원유 선물이 크게 하락하고,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원유의 타임 스프레드가 완만해지면서, 원유 공급량이 풍부하다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도 크게 증가했다.

- 현재로선, 사우디와 러시아는 원유 감산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전문가들은 이외의 OPEC + 가입국이 감산에 동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
- OPEC의 결정이 이번 분기와 더불어 내년에까지 원유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기후]

WSJ: Now for Some Good News About Climate 기후에 몇 가지 좋은 소식들

- 친환경 에너지 관련 나쁜 소식이 끊기지 않고 있다.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두려워하고 있고, 고금리는 기업들의 재무계획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허가는 지연되고 있다.
- 이런 와중에 Sun Streams이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 단지로서, 피닉스 서쪽의 13제곱마일이 넘는 사막을 말한다. 다. 이와 관련 2025년까지 약 30만 가구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 가능할 수 있다.
- 블룸버그NEF는 올해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약 400기가와트의 전기 생산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전 세계 발전소 발전 용량의 4.5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에너지 전환 긍정론자들은 말한다.
-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2009년과 2023년 사이에, 태양광 에너지의 평균 비용은 90% 가까이 감소했다. 태양광 패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he Biggest Delivery Business in the U.S. Is No Longer UPS or FedEx 아마존, UPS 넘어서 가장 큰 택배 회사노리다

- 아마존의 택배 배송량이 UPS와 FedEx를 넘어서면서, 미국 내 가장 큰 배송회사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 아마존의 내부 정보와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시애틀에 소재한 이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은 2020년에는 FedEx의 택배 배송량을 앞질렀고, 2022년에는 UPS를 넘어서며 더 많은 상품을 배달했다. 심지어, 이런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 월스트리트 저널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 이전에 아마존은 이미 미국에서 48억 개 이상의 택배를 배송했으며, 아마존의 내부 예측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그 수가 59억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 UPS와 FedEx는 최종 배송을 위해 우체국에 인계한 소포까지 배송량에 포함한 반면, 위의 수치는 아마존이 배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소포만을 집계한 것이기에 실질적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Retailers Have Cleaned Up Their Inventories for the Holidays 소매기업들, 연휴 쇼핑 대비 새로운 재고전략

- 소매 기업들이 이번 연휴 쇼핑 기간, 2022년과는 다른 재고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창고는 더 이상 상품들로 채워지지 않고, 가게에는 할인된 제품들이 넘쳐나지 않는다. 대신에, 월마트나 타겟, 그리고 베스트 바이나 디크 스포츠용품 같은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공급망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 소비자들의 변덕스러운 소비패턴으로 인해, 상품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소매기업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 미니애폴리스에 소재한 타겟은 비교 매출이 4.9%나 감소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10월 28에 마감된 분기에 재고가 14% 줄었다.
- 타겟의 CEO인 브라이언 코넬은 11월 15일 어닝 콜에서, 이번 연휴 시즌 판매 계획을 준비하면서, 신중한 재고 전략과 상품별 할인 기준을 유지했으며, 이를 통해 변동적인 트렌트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WSJ 기사

CNBC: Flying taxi firm Lilium receives EU approval for its electric jets 항공 택시 기업 Lilium, EU에서 운영 허가

- 항공 택시 기업인 Lilium이 EU로부터 전기 수직 이착륙 차량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다.
- 이 독일회사는 유럽 항공 안전 기관(EASA)에서 디자인 및 조적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 이번의 허가는 공중 비행체(Air Vehicle)의 상업화에 힘써왔던 산업계에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트럼프 집권시 '바이든 기후정책' IRA 다 뜯어고친다"

"외신, 선거캠프 인용...보조금·세제혜택 대폭 손덜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이거 재집권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계획이 전해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관계자·고문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IRA를 급진적으로 정비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제정한 법률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